

# 경제성장률 4%대로 둔화, IT제조업이 전체 성장 주도

2011년 경제 및 산업 전망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1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6%대 성장보다 다소 둔화되어 연간 4.3%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및 주요업종의 경쟁격화 등으로 10% 내외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고, 수입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4%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 산업분야에서 내수와 수출 둔화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될 전망이다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인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

## I. 거시경제 전망

**현재 경기 빠른 회복세, 최근 들어 다소 둔화 추이**  
작년 하반기 이후 매우 빠른 회복세를 보여 온 국내 경기는 최근 들어 회복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추이이다.

3분기 GDP를 보면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등 민간 내수의 회복기조는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소비와 재고, 수출 등이 둔화되면서 상반기(전기비 1.8%)에 비해 성장률(전기비 0.7%)이 상당 폭 둔화되었다. 산업생산과 더불어 주요 선행지표들이 둔화 추이를 보이고 있어 4분기에도 성장세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경제, 불안요인 지속 및 부양효과 소멸로 회복세 둔화 전망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효과의 소진 등으로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이이며, 2011년에도 불안요인의 미해소, 중국의 긴축 등으로 전년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을 전인해온 중국도 긴축 등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되어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상당 정도 둔화될 전망이다.

### 국제유가 및 환율, 유가 제한적 상승 및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 예상

국제유가는 경기회복과 달러 약세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나 세계경제 회복세가 완만하고 재고물량의 부담 등이 있어 상승 폭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은 달러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하락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 2011년 경제성장, 상반기 큰 차이 없이 연간 4%대 중반 예상

침체 이후 반등효과의 소멸, 경기부양 효과 소진,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 국내 경제성장은 전년에 비해 상당한 정도 둔화가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은 상반기 고성장의 영향으로 6%대 성장이 예상되고, 2011년은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간 4.3% 정도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상반기 비슷한 성장흐름이 예상되고,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는 전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나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민간소비, 소득 및 고용 회복에 힘입어 4% 내외 증가

민간소비는 작년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 회복과 고용 여건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2011년에도 견실한 회복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주택경기 부진 및 금리 인상과 연계된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높은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GDP 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연간 4% 내외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 설비투자, 세계경기 불확실성 및 성장세 둔화로 증가세 하락 전망

설비투자는 전년 감소의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 수출 신장 등에 힘입어 2010년 들어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환율 하락으로 수출증가율 10% 내외로 낮아질 전망

2011년 수출은 기저효과와 소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및 주요업종의 경쟁격화 등으로 증가율이 10%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다.

수입도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나,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보다 높은 14%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무역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전년대보다 줄어든 29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7.6 (1.8)	4.8 (0.7)	6.2	4.1 (1.1)	4.5 (1.1)	4.3
민간 소비	5.0	3.7	4.3	3.8	4.1	3.9
건설투자	-0.7	-0.7	-0.7	0.2	0.4	0.3
설비투자	30.1	18.8	23.9	8.0	6.6	7.2
통관기준 수출 (억달러) (%)	2,214 (34.3)	2,449 (23.2)	4,663 (28.3)	2,470 (11.6)	2,655 (8.4)	5,125 (9.9)
통관기준 수입 (억달러) (%)	2,040 (40.3)	2,203 (24.0)	4,243 (31.3)	2,336 (14.5)	2,498 (13.4)	4,834 (13.9)
무역수지	174	246	420	134	158	291
경상수지	117	200	317	116	78	194
소지자달가	2.6	3.3	3.0	3.2	3.5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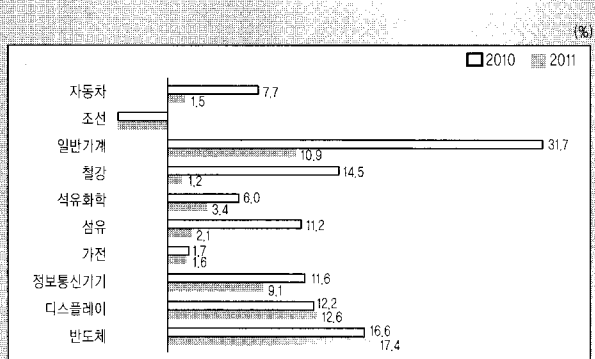
주 : 1) 수출입(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 >안은 전기대비 분기증가율의 반기 평균

## II. 산업별 전망

IT산업군이 제조업 내수 주도하나 증가세는 둔화 고용불안, 가계소득 부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세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제조업 내수는 둔화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의 IT산업군이 제조업 내수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 내수는 호조이나, 자동차와 조선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산업군은 건설경기 부진, 전방산업의 성장 둔화, 구매력 둔화 등으로 1~3%의 미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림 1〉 2011년 주요 업종별 내수증가율 전망 (%)



## 10대 주력산업 수출, 8.7% 증가로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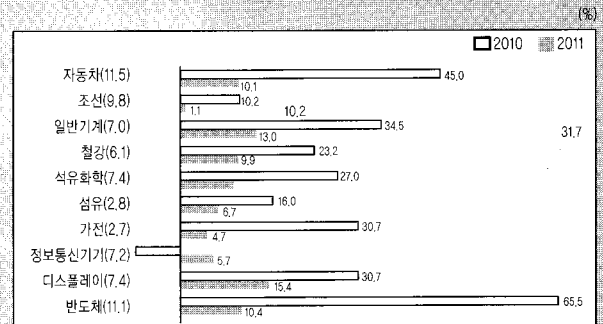
수출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중국과 개도국 등의 신흥시장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원화 절상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8.7%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신흥시장의 IT제품 수요 증대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어 IT산업군이 10% 증가하면서 제조업 수출을 견인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은 신흥국 수요 증가, 수출단가 상승, 국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 등으로 9% 증가할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은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부진으로 7.5%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그림 2〉 2011년 업종별 수출증가율 전망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은 총수출 대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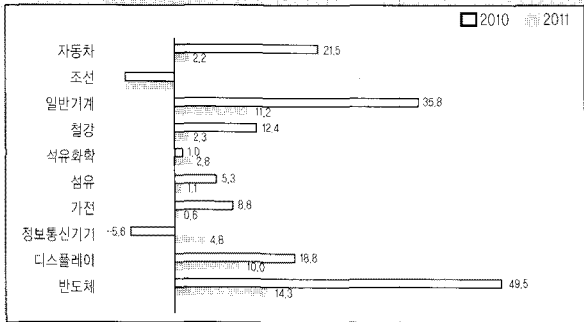
## 내수와 수출 둔화로 생산도 증가세 둔화

내수 회복세 미약, 수출환경 악화,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이 둔화되며, 상대적으로 수출 호조인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20나노급 낸드플래시 공정전환과 30나노급 D램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도체는 내수와 해외수요를 충족시키면서 10대 업종 중 가장 높은 14.3% 증가할 전망이다.

업종별로 명암이 크게 엇갈리는 기계산업군은 일반기계와 자동차 생산은 증가하나 조선은 감소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은 설비 가동률 향상과 설비능력 확대 등으로 1~3%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림 3〉 2011년 업종별 생산증가율 전망 (%)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10대 업종 수출에 미치는 원화절상 영향은 약화되는 추세

해외생산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차별화, 품질 및 브랜드력 강화, 중국과 대만, 일본 통화와의 동반 절상 등으로 원화 절상이 10대 주력업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는 추세이다. 자동차는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조선은 환해지와 제품 차별화, 가전과 정보기기는 해외생산 확대 석유화학과 반도체는 환율보다 국제수급 영향이 더 크고, 디스플레이는 우월한 원가경쟁력 확보로 환율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환율 하락에 따른 원자재 및 부품·소재 수입단가 하락효과가 수출가격 하락폭에 못미칠 경우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입제품의 국산제품 대체 확대로 인한 국산 제품 매출이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부품·소재의 경우 대내적으로는 저가 부품수입 증가 증가로 인해 단가인하 압력이 커지고, 부품의 국산화가 지연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해외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표 2〉 2011년 산업전망 기상도

	내수	생산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주 : 1) 전망 :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10%이하 ☔☔, -5%~ -10% ☔, -5~0% ☁, 0~5% ☁, 5~10% ☀, 10%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 『광학세계』 원고 모집 안내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세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원고 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이달의 독자, 칼럼 등
2. 원고 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 마감 : 수시 접수중

※ 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

- 연락처 :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세계' 편집부
- TEL : 02-3481-8931
- FAX : 02-3481-8669
- E-Mail : pjy@koia.or.kr